

영산강 황포돛배 뜨는데...

나주시, 年 2억원 운영비 고심... 민간사업자에 위탁 추진

전남도, 배 2척·선착장 설치비 1억5천만원 지원

나주시가 영산강 황포돛배 운항을 위한 예산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남도 짙음인 영산강의 옛 정취를 살리고 남도 고유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영산강 일대에서 황포 돛배 운항에 나선다.

전남도는 황포돛배 운항을 위해 1억원 상당의 배 2척과 선착장 설치비용 5천만원 등 1억5천만원을 나주시에게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황포돛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유류 대금 등 연간 2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황포돛배 운항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전남도에 요청했으나 기반시설과 복지분야가 아니라서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궁여지책으로 삼한지 테마파크와 황포돛배 운항 사업 운영권을 하나로 묶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광주지역 모 건설사와 삼한지 테마파크·황포돛배 운항 사업 운영권 위탁 경영과 관련한 투자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황포돛배는 운항 기간이 제한돼 있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는데다 시 재정상 황포돛배 운영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민간 운영업자 선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산강 황포돛배 운항사업은 오는 19일 취항식을 갖고 시험 운항 기간을 거쳐 남도 고유의 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진도 2.8km 신비의 바닷길 '기네스' 도전

진도군은 5월 5일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2.8km의 바닷길에 걸쳐 관광객들이 신비의 바닷길을 체험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날 바닷길에 들어간 체험 관광객 숫자 5천632명과 '세계 최장의 바닷길'에 대해 영국 기네스월드 레코드 본사에 공식 등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헬기조종=전남소방항공대 최순연·정석화 기장)

'제 31회 진도 바닷길 축제'가 시작된 5일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2.8km의 바닷길에 걸쳐 관광객들이 신비의 바닷길을 체험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날 바닷길에 들어간 체험 관광객 숫자 5천632명과 '세계 최장의 바닷길'에 대해 영국 기네스월드 레코드 본사에 공식 등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헬기조종=전남소방항공대 최순연·정석화 기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이버 마을공부방' 30→40곳

전남,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

전남지역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30곳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마을공부방'을 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이버 마을공부방 40곳은 다문화반이 8곳, 저소득층반 2곳, 인터넷이나 PC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반 19곳, 농산어촌반 11곳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돼 운영

되며 온라인 학습의 경우 전남도교육정보원의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과 콘텐츠를 활용해 이뤄진다.

오프라인 학습은 각 지역의 정보화 마을이나 마을회관, 학교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도교사가 주당 2회 이상 방문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부방에는 학생 지도를 위한 PC가 5대씩 지원되며 사이버 마을공부방을 지도할 초·중학교 교사 40명에 대한 연찬회도 최근 실시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함평 나비엑스포 어린이날 '대박'

관람객 6만709명... 에버랜드 보다 많아

개막후 차량 유입·열차·KTX 승객 급증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막 이후 함평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함평영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엑스포 개막 이후부터 4일까지 함평IC와 동함평IC를 통해 함평군에 유입된 차량은 모두 5만 3천33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천 105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등 외지 차량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함평역을 이용한 열차 승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 6천423명에서 1만1천670명으로 81.7% 증가했으며 엑스포 기간에 특별운행하

는 KTX 이용자도 3천32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함평 버스터미널의 하루 평균 수입도 엑스포 개막전인 1~3월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어린이날인 5일 하루 6만709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 용인에 있는 국내 최대 놀이공원 에버랜드를 찾은 5만5천여 명을 웃도는 수치다.

이날 조직원 축이 개장 시간을 30분 앞당긴 가운데 개장 1시간 전인 오전 7시 30분부터 표를 끊으려는 사람들과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매표소 앞이 장사진을 이뤘으며 행사장으

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도 이른 아침부터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강진군·통취안시·하사미町

韓·中·日 도자기 공동 전시

한·중·일 지방자치단체가 도자기로 인연을 맺었다.

강진군은 최근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과 행정과 문화·교육 등 교류와 협력을 위한 상호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강진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중국 청자생산 주산지인 저장성(浙江省) 룽취안(龍泉)시와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중·일 3국 도자기 전시회 공동 개최 등 문화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화순군 '맞춤형 위생교육' 호평

화순군이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화순지역 서비스업소 종사자들은 시간적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기 어려워 식품위생법 등 법규 위반은 물론 음식문화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화순군은 이에 따라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직접 업소를 찾아 현장에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순군은 앞으로 '찾아가는 위생교육 콜센터'를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지역 음식문화를 한차원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군의원 영농자금 편파지원

檢 목포지청 수사 착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영암군의회 P의원의 영농자금 지원에 관한 보도(본보 4월 30일자 12면)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영암군은 6일 "최근 검찰의 요청에 따라 2007년도 군 자체 영농자금 지원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포지청의 이번 수사 착수는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의 국가보조금 편취,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직무비리 등을 집중 단속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영암군도 P의원에 대해 지원된 영농

자금 회수를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광배해 P의원 아내 명의로 된 추사 지원금에 대한 회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암군이 지역구인 P의원은 지난해 FTA 농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편성된 군 예산 5천 200만원 중 아내 명의로 된 추사에 1천650만원, 스키드로터(퇴비 등 운반차량) 구입 자금 1천500만원 등 3천 150만원을 지원받아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SONY BRAVIA

고객감사 大 축제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는 FINE HD TV BRAVIA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HDR-SR12

대형형, HD급, 비싼 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1,500,000원! (부가세 포함) 1,400,000원!

120 48

전통은세 060-700-3657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달란에게 맞는 해결책을 전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달란에게 맞는 해결책을 전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달란에게 맞는 해결책을 전달합니다.